

2028 대입성공 정복하는 일반고 필승전략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등장은 고교 교육과 대입 지형을 흔들고 있다. 내신 5등급제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수능 국수탐 영역의 완전 통합은 기존 입시 공식을 무력화했다. 인프라가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 겁먹는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 그러나 대입 제도의 본질을 꿰뚫고 치밀하게 움직인다면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일반고 학생이 대입 승리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4대 핵심 행동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100% 학기제로 전환되는 고교학점제 환경에서는 매 학기 단절 없이 이어지는 누적식 선택 설계에 시달릴 것이라 학업 역량을 증명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교과목이 1학기 이내에 종결되는 구조다. 개편안에 따라 학생부의 수행평가 영역명과 반영 비중이 대학에 투명하게 제공되고, 과제가 학술적인 심층 탐구인지, 단순 복사-붙여넣기인지 단번에 탄로 난다.

따라서 시험 직후 주어지는 수행평가와 탐구 보고서 제출 일정은 선택의 성패를 가

른다. 이때를 학업 역량 표출 기간으로 정의해야 한다. 1학기 과목의 지적 호기심이 2학기 심화 과목의 수행평가로 이어지는 연쇄식 선택을 기획해야 한다. 가벼운 시사 상식 나열은 금물이다. 교과와 본질적 개념을 바탕으로, 전공 맥락과 연결된 심화 원서를 탐독하거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고교생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학술적 수준을 500자 안에 명확히 녹여내도록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둘째,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 5등급제 체제 일수록 인원수가 적고 까다로운 심화 선택 과목을 기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수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2028 대입의 큰 변화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전환이다. 결국 변별력은 숫자가 아닌, 정성평가인 교과이수 충실도에서 발생한다.

평균이 50점대인 어려운 심화 과목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평균 80점인 평이한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수강 인원이 적거나 어려워서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화 과목을 기피하는 것은 대입 포기다. 치열하게 노력한 흔적을 증명하는 정면 승부만이 공식이다.

셋째, 수시 학교장 추천전형처럼 졸업생의 진입 장벽이 높고 재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고3독점 전형을 선점해야 N수생과의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대입의 정서는 N수생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고3 재학생으로 제한하거나, 졸업생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고3 때 갑자기 추천 카드를 딸 수는 없으므로, 1학년 입학 순간부터 내신 관리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치밀하게 정돈해야 한다.

넷째, 전 영역의 균형이 중요한 통합형 수능에서는 고1시기부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무조건 충족해야 한다. 일반고에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비극은 학생부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케이스다.

2028 대입부터 수능은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된다.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탐구 또한 모두가 동일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른다. 유불리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고1 때 배우는 통합 탐구 개념이 수능 당일까지 직결되므로 초반부터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

제도 탓을 멈추고 전략으로 압도해야 대입에 성공할 수 있다.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대학이 뽑고 싶어 하는 인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혁신의 기회, 경쟁의 과제



기지 수집
신 하 은
(자본시장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화에 나섰고, 업계에서는 시장 집중도와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간편결제 시장의 강자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가 결합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번 과정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도 있다.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성장 측면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는 쟁점은 익숙하다.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 우위, 고객 잠

금효과, 시장 집중도 상승, 후발 사업자의 진입장벽 확대 등이다. 실제로 네이버와 두나무가 결합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느끼는 위협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이다.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은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결제, 투자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플랫폼과 금융의 결합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규제와 우려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외면하지는 않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다. 특정 기업이 플랫폼 영향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다만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경쟁 촉진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산업에 대해 국내 시장만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은 국경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분야다.

시장 경쟁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이제는 두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8일 (음 5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해결됩니다. **60년생** 생각이 못한 지출이 있겠습니다. **72년생** 과도한 욕심은 금물. **84년생** 친절한 전화 한 통화가 당신과 애인 사이를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 49년생** 주위를 잘 살피야 합니다. **61년생** 사회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73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수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85년생**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 50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2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74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86년생** 귀인을 만나며,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51년생** 주위에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 행복합니다. **63년생**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75년생** 이성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87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독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52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64년생** 남 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조만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88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것입니다.
- 53년생**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65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77년생** 항상 말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89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습니다.
- 54년생** 감기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주변을 항상 주의하도록 하세요. **78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90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 55년생** 일운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67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79년생** 베풀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1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 나비가 기뻐합니다.
- 56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홍반갈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 57년생** 중도를 염두 해 두고 행동하세요. **69년생** 타인의 잘못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81년생** 성의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93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58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0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2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94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 59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세요. **71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83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입니다. **95년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사찰 풍수

산속에 자리 잡은 절을 찾아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절마다 모습은 서로 다른데 어디를 가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산속이어서 또는 종교 공간이어서만은 아니다. 한국의 절들은 대부분 산세가 깊고 웅장하거나, 물이 감싸듯 흐르거나, 햇볕이 잘 모이거나 하는 풍수지리에 따라 자리하고 있다. 풍수지리는 땅의 형세와 물길, 산맥의 흐름, 바람의 방향 등을 살펴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터를 찾는다. 풍수에서는 산과 물의 흐름이 조화를 이룬 터에 기운이 모인다고 본다. 좋은 터에는 생기가 모이고, 그 기운이 사람과 건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도 이 사상은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맑고 좋은 기운이 충만한 곳에 수행 정진하는 도량을 지었고, 그런 까닭에 절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은 도심 곳곳에서도 절을 만날 수 있다. 수행과 기도의 공간이 필요한 대중들에게 도심 속의 절은 찾아가기 쉽고 반가운 곳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도 지하철만 타면 언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인지 주기적으로 기도를 올리고 마음 수행을 위해 찾아온다. 월광사는 도심에 있지만, 풍수 면에서는 어떤 곳 못지않은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있다. 한남동 평창동 같은 곳에는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풍수로 길지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재물의 기운이 강하게 모여드는 곳은 좋은 터였다. 월광사 주변에는 은행 본점과 주요 기업 사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풍수 좋은 곳에 저절로 재물이 모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광사에서 기도를 올린 뒤 재물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생기 넘치는 기운으로 수행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제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레코드를 추가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1			9	5			
	3			8	2			1
8		1		6		9		2
								7
		2	7		8	4		
7		6		3		8		5
4			5	7			9	
		5	8				4	7

4	2							9
	9	1		8	5			4
			1	9				3
	5					1		
	2	4				7	9	
		3					8	
9	7			3	2			
1	4		9	1		8	2	
						9		5

5	2	8	7	9	6	1
8	6	2	1	2	9	6
9	1	8	7	6	9	2
7	2	6	9	1	8	2
6	9	7	8	1	2	9
9	2	1	9	6	2	7
2	9	6	2	9	1	7
1	9	2	8	7	6	9
6	8	9	6	7	9	2

9	2	6	8	7	9	6	1
6	2	8	2	1	6	9	7
9	1	7	2	6	9	8	2
7	8	9	6	2	9	6	1
1	6	2	9	9	6	1	2
2	9	1	6	7	8	6	9
8	9	2	7	6	1	2	9
2	7	9	8	2	1	6	8
6	9	6	1	9	2	8	7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3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